

3. 제사를 드리면 안 되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4, 19-21, 23-24, 31절

14.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9.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나

20.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제사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만일 전통적인 유교나 불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면 “제사 문제”는 자신의 삶에서 ‘identity’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막심한 불효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그 가정과는 별개의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제사 문제”가 신앙을 지키느냐? 가정을 포기하느냐? 결단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제사 문제를 가지고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임 때마다 가슴을 졸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의 문제에서 신앙이 승리한 자신감과 그로 인해 “신앙의 가정”이 되었다는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목사님 이번부터 저희 집안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추도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라고 말하며 좋아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 때만 되면 가슴을 졸이며, 명절에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것이 괴로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양심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자신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면 둘 중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원하지 않지만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가족의 분위기를 깨든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어도 제사 문제가 걸려서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사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뜨거운 감자’라고도 하지요. 제사를 허용하자니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유산인 ‘identity’를 상실하는 것 같고, 신앙의 지침으로 제사를 금지하자니 선교의 문을 닫는 것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찌된 이유이던 간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동안 한국교회에 있어왔던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면서 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조상 제사의 논점은...

조상 제사의 문제는 무엇보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선교의 가장 큰 장애였던 ‘조상 제사 문제’가 이제는 ‘추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천의 ‘identity’를 대신하며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든지 선교의 가장 큰 장벽은 그 나라 그 민족 특유의 민족주의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토속 신앙 혹은 미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 ‘미신’을 타파한다는 이름하에 행하는 것들이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 나라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회심’을 강조하며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하거나, 선교지 민족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적 관점의 회심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착각하는데서 기인합니다.

예를 들자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을 정하는데 있어 아무런 고민이 없이 주일 예배 시간을 ‘일요일 11시’ 어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배우고 노래를 할 때에도 선교사들이 알고 있는 음악 양식을 ‘기독교 음악’이라고 생각하며 전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전달되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 기존의 의식주가 쉽게 변형되거나 거부되기도 합니다. 꼭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어야 위생적이고 문화적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적 인식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방식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던 때,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 ‘조상 제사’가 해석되었고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복음의 토착화. . .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에서 개신교의 역사는 무척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복음이 전파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세계 교회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내면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복음이, 우리 문화와 잘 어우러졌던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선교 역사가 깊은 천주교보다 개신교가 훨씬 빨리 성장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문화적 태도로 설명이 됩니다.

먼저, 한국 교회의 전통처럼 되어버린 ‘새벽 기도’는 우리 민족에 깊이 뿌리박혀 있던 민족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복을 빌던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절에 가면 볼 수 있었던 새벽 예불의 전통 등이 아주 자연스럽게 새벽기도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소개한 서양 기독교의 전통에는 새벽 기도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유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에서는 목회자들을 잘 받들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 역시 ‘장유유서’나 ‘군사부일체’같은 유교적 산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장로제도’가 잘 뿌리를 내린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유교의 영향은 부모들에게 자식에 대한 향학열을 높여주었죠. 번역된 성경을 모든 민중이 읽을 수 있었던 것도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국 기독교의 독특한 모습 중의 하나는 ‘산기도’입니다. 이것 역시 산에서 고사를 지내던 무속신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바뀐 예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개념이 이미 우리 민족 속에 뿌리박혀 있었다는 것이지요.

실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민족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화적인 장벽입니다.

파푸아뉴기니의 한 부족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며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시키셨습니다.”라는 말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루는 선교사가 마을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네, 일 년에 한 번 모여 모든 사람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선교사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어떤 부족에게 화해란 상대방 앞에 침을 뱉고는 깡충깡충 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화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와 술, 담배에 관한 것입니다.

개신교 선교 초기에 기독교는 입교의 조건으로 우상 숭배와 조상 제사 폐지를 필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조상 제사 폐지, 주일성수, 부모공경, 축첩금지 등을 세례 교인이 되는 조건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 신자들이 부모와 가문으로부터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었으며, 심지어는 부모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로 보는 지나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경험됩니다. 전도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도 대상자들로부터 이러한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믿고 싶으나 조상 제사 때문에 곤란하다.” “나는 장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 말들은 단순한 핑계가 아닙니다. 예나 오늘이나 예수를 믿는 것은 미신을 버리며 조상에 대한 제사를 버리고 나서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며, 지금까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는 혁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얻고 중생한 다음에 신앙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를 실천하는 것과 미신을 버리고 술, 담배를 끊어야 입교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좋지만 조상에 대한 불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반발하고 싶은 것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상 숭배를 미신으로 보려는 편견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우상 숭배의 영역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한국 문화를 배타시키는 기독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선교의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살짝 밝히고 가자면, 제사 역시 술, 담배와 같은 시각에서 선교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죄인이었던 사람들, 옛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현재 제사를 드리거나 술, 담배를 하는 것에 관계없이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일어날 변화와 결단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삶을 기대하기보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만나교회가 흡연실을 만든 이유도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우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제사의 문제 역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식인 “추도 예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교회 중심적인 전통”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선교”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허용하기 보다는, 아직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복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것이 교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결론을 다 말해 버렸지만, 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생각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0장 본문 말씀**을 확실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 19-21, 23-24, 31절**

14.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9.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나

20.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곁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곁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또,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곁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곁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의 문제이지요.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의 도리라 하면, ‘관혼상제’를 들 수 있습니다. 서양의 예식들이 기독교적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일본은 불교 의식, 중국은 유교 의식에 그 근거를 둡니다. 그러나 한국의 예식들은 그 뿌리와 변천이 아주 복잡합니다.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다 받았을 뿐 아니라, 무속신앙과 결합하여 토착화 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근간이 되는 무속신앙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무속신앙에서는 인간 영혼의 불멸을 믿어 왔는데, 이 신앙이 제사 의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체를 매장할 때 여러 가지 격식을 갖추려는 것은 죽은 영혼이 그

시체에 있든지 또는 배회하고 있으며 다시 돌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미 죽은 조상의 혼이 배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정된 안식소에 가 있지만 때때로 자손들을 찾아오며 특히 죽은 장소와 그가 살던 곳에 찾아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혼들이 끊임없이 자손의 예배와 공양을 받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이처럼 극진한 공양을 받는 조상의 혼이 그 자손을 가호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민속 신앙이 발전하며 세속화될 때에 죽은 조상 혼의 가호를 받고자 하는 자기중심적 욕망이 우선되고 심지어는 자손들의 액운과 재해를 막아 주고 또 큰 복을 내려 준다고 기복 사상까지 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유교의 형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미신적인 뿌리에 유교적인 옷을 입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죽은 영혼을 만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며,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8장에 사무엘이 죽은 후 대답했던 사울 왕이 ‘엔돌’이라는 곳에서 신들린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라고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진노하시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귀신을 불러내는 것과 악한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 혹은 굿하는 것을 통해 불러내는 것들은 우리의 조상신이 아니라, 떠돌고 있는 악한 영들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혼과 귀신들의 일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경험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엉터리 집사가 친구와 함께 술을 먹으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이 친구! 지금 교회 가는 시간 아냐?”라고 합니다.

“괜찮아 나는 엉터리 집사야!” 그리고는 함께 술을 먹었습니다. 밤에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데 어디에서 굿을 하는 소리가 들려, 어렸을 때 봤던 생각이 나서 함께 구경을 하러 갔답니다. 그 순간은 막 무당이 신 내림을 기다리며 징을 치고 있었고, 신이 내리면 시루떡을 머리에 이고 작두를 탈 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당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여기에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있네. . .” 하더라고요. 그러자 친구가 “너야 너!” 그러자 “난 아냐!”

계속해서 신 내림 굿을 하는데 또, “여기에 나보다 큰 신을 모신 분이 있네. . .”

그러자 친구가 또 툭 치면서 “너! 아냐 너?” 그러자 역시 “난 아냐! 난 엉터리잖아. . . 불안해 죽겠어” 그런데 역시 또 무당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우리과 다른 사람은 빨리 떠나가. . .”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갔는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헤어져 가는데 이 엉터리 집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셨구나. . .”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경에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다른 영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1.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곁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곁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제사에 대한 논쟁은 “효”와 “신앙”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논쟁은 “효”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 제사가 무속화 되어 있는 한, “제사의 형식”은 조상들을 위한 효의 개념보다는 자손들에 대한 “기복 신앙”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상이 제사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조상제사는 -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 논쟁을 “효”의 문제로 다룬다면 - 부모님을 향한 추모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선교사들이나, 서구 신학의 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1세대 크리스천들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상 제사”가 무속과 연결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유교 사상과 결합 되어온 우리의 전통에서 “효”의 정신을 떼어 놓고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초창기 천주교와 기독교가 동일하게 “우상 숭배”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금지했지만, 한국 사회의 전통에서 나타난 부딪침은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효”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해법은 “추도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1897년 아펜젤러 선교사 등이 발행한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9월호에 처음으로 추도예배가 소개 되었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 당시 정동감리교회의 교인이었던 이무영이라는 사람이 정 3품의 높은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친의 기일에 고민을 하다가 추도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다른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좋다고 생각해서 그 후에 이 교회에서 추도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정식으로 추도 예배를 인정한 것은 1934년의 감리교 총회에서 였고, 이어서 구세군과 성결교가 1950년대에,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70년대 말에 가서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연히 크리스천이면 제사 대신 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추도식은 기독교적인 전통이나, 성경적인 전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추도식은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제사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의 요소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녀야 할 조상에 대한 추모 의식, 그리고 “효”의 사상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한국적 기독교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추도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조상, 우리에게 생명을 물려주신 어른들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가족 간의 우애와 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손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이 아닌, 예배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우애를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추도식이 가지는 문제는 아직도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추도식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신앙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추도식”이 역시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래 전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는 부모를 절해서 섬기고 경배해서 섬깁니다. 산 부모에게 절하고 죽은 부모도 부모니까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라고 했지요.

순복음교회가 이단 시비에 휘말렸던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용기 목사의 해석은 선교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어른이었던 한경직 목사님 역시,

“조상을 존경하는 경의를 표하는 데까지는 교리적 문제는 없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단호합니다. 조상을 귀신으로 보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절을 하는 것과 지방을 쓰고 제사를 차려 올리고, 향을 피우는 것 등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견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5절**에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놓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의문을 가지고 또한 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행위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을 추모하는 효의 행위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해답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해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적 관점에서의 해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질 때 오는 해답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를 시작하고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 예수님 이후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일컫는 사도 바울의 선교적 입장입니다. 타 민족이나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교과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헬라 문화에는 “신인 동형론”이라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을 인간의 관점에서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바, 사도행전 17장 22-23절에 보니까,

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법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관념을 부정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문화를 인정하여 대화의 통로를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차근차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부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선교학에서 아주 중요한 대화적 접근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그들과 대화할 수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제가 출판한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단순히 나쁘다고 말하기 보다는, 그들 속에 있는 부모님을 향한 효의 본성을 칭찬하고, 기독교가 결코 불효한 종교가 아님을 알리고, 만날 수 있는 contact point가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했던 말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효라는 의식으로 제사를 안고 들어와도,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올바른 관념이 생기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얼마든지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현장과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이지요. 사실 많은 갈등이 여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을 향한 추모의 행위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을 하듯이, ‘절’은 분명히 한국 사회의 고유한 예법이지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결국은 제사의 모양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도, 추도식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예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서구적인 기독교의 모양으로 조상을 추모하기 때문에 오는 반감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한국 교회가 이 제사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형식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24, 31절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음에 따라, 제사가 아닌 조상을 향한 추모의 의미로 절을 할 수 있겠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어떤 일들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란, 참다운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선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술과 담배를 가지고 하나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선배 사역자 한 분이 난지도에서 사역을 하며 녀마주이들과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막걸리를 마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과 만남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시에는 소위 운동권에 속한 목회자들이 술을 마시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꽤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대전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혼식을 마치고 꽤 유명한 그 운동권 목사님이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소주잔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는 다른 많은 교인들이 있었고, 저는 이분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상처를 받기도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하는 염려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을 알고도 행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사에 대하여도 그렇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아님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제사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에서, 내가 하는 행위가 덕을 세우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 명쾌한 해답, 즉 분명한 지시를 얻으리라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면 편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 명쾌한 해답은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결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내세관, 신앙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참 많은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좀 더 잘 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돌아가신 부모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것 밖에는 말입니다.

“죽음”은 심판입니다. 심판 이후에 그 판결을 번복할 자가 없으며, 이 심판의 결과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승에서 날 오라면”이라는 짧은 글입니다.

저승에서,

환갑(還甲, 60)에 날 오라면 하던 일이 안 끝났다 해라.

고희(古稀, 70)에 날 오라면 지금 출장 중이라 해라.

희수(喜壽, 77)에 날 오라면 조금 이르다 해라.

산수(傘壽, 80)에 날 오라면 아직 만나야 할 사람 있다 해라.

미수(米壽, 88)에 날 오라면 쌀 좀 더 축내고 간다 해라.

졸수(卒壽, 90)에 날 오라면 너무 재촉 말라 해라.

백수(白壽, 99)에 날 오라면 알아서 간다 해라.

다수(多壽, 108)에 날 오라면 지금 기도 준비하고 있다 해라.

황수(黃壽, 111)에 날 오라면 지금 집 꾸린다 해라.

천수(天壽, 111 이후)에 날 오라면 막 떠난다 해라.

이것이 삶에 대한 애착을 이야기하는 글인가요?

그러나 세월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살고 싶어도, 아무리 마음이 청춘과 같다 해도 육체의 노림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윤리관이 분명합니다.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입니다. 살아계신 분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장례 예배와 추도 예배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들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추도 예배의 본래 의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잘 죽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관입니다.

잘 살아야 후회함이 없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 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예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과 믿음이 있는 가족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입니다.

제사의 본래 정신이 부모님을 향한 효에 근본이 있다면 기독교와 제사가 만날 수 있는

합의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효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선 당신의 결단이 있을 뿐입니다.